

제 2 장 학회 연혁 및 발전사

2.1 연대별 개관

2.1.1 1967 ~ 1969

한국수자원학회의 시작 단계의 명칭인 한국수문협회가 1967년 11월 20일에 전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67년 12월 23일에 건설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7월 6일, 건설부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 제 14차 연구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나라 수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토목, 농업토목, 삼림(森林), 지질, 지하수, 기상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분야를 망라한 수문학자 및 수문기술자의 상호협조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한국수문협회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7월 29일에는 제 8차 수공연구회 회의석상에서 본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였고, 8월 31일에는 박성우 교수 외 준비위원 25명이 작업을 진행기로 합의하였다. 9월 9일, 한국교육회관에서 준비위원회 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통과시키고, 준비위원장으로 박성우, 총무간사로 김운재, 섭외간사로 최영박을 선출하여 준비작업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준비위원회의 예산은 360,200원으로 하되 각 기관의 찬조금으로 충당토록 결정하였다. 9월 14일, 서울신문사 별관에서 제 2차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어 수문의 홍보 문제 및 협회정관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홍보의 일환으로 한미기술협회와 협의하여, 수자원 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협회의 주무관서를 건설부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10월 4일, 제 3차 준비위원회가 한미기술협회(전기회관 202호)에서 개최되어 정관의 확정과 적극적인 설립위원 추대작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11월 9일, 제 4차 준비위원회를 한

강유역조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한국수문협회 창립총회를 IHD 기념우표발행일인 11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 14일 제 5차 준비위원회가 한강유역조사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창립총회 진행 방안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였다. 11월 14일, 제 6차 준비위원회를 중앙관상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준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업무일체를 한국수문협회 설립위원회로 인계하며 현 준비위원은 전원 설립위원으로 합류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까지 준비경과가 보고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윤기 박사를 선출하였고, 정관을 확정하였으며,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협회 설립에 대한 제반 동기수속을 위원장이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설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설립위원 명단>

김윤기 김해림 김여택 최종성 강종무 장학순 최치환 이문혁
장달진 김성희 원종훈 변규연 김택수 박기병 이에민 최두호
김종구 김희종 이승춘 한성금 김형주 김호식 박창원 최영박
조성근 정주영 이원환 장창국 박성우 김형수 김동무 한을출
김운제 박영후 김도권 김시원 고길훈 김동한 신경식 황정철
최보영 양상현 안수한 한찬우 김광식 강관원 정봉일

한국수문협회 설립준비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협회의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다.

「물은 사소한 우리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의 생활관계와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면에 있어서는 물론 문화,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반면 무서운 파괴력은 수해라는 양상으로서 생활에 지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동시에 산업발전에도 막대한 저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증가,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이로 인한 도시 및 사

회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등 새로운 물 문제를 야기케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오늘날 산업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가적 물의 수요 욕구는 필연적으로 물 이용도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의 합리적 개발과 균형된 배분 이용은 초미의 급선무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이며 국가적인 과제에 따라 수자원의 고차적 개발이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수문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IHD사업을 통하여 각 가맹국이 유대를 긴밀히 하여 그 강력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아도 능히 위에서 언급한 실정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으며 수문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산업건설과 그 발전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서술한 바 국내외 시대적 조류에 입각하여 수문의 과학적 처리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물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의 수문기술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대를 마련하고 수문기술의 근대화를 촉진하며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문 및 이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 보급 및 그 지식의 전달계몽과 수문계기의 개발, 수문 및 수자원에 관한 국제기구의 참여를 통하여 기술교류 등을 주된 취지로 사단법인 한국수문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립총회는 IHD 기념우표 발행일인 1967년 11월 20일에 전기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총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여택씨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되고,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대한토목 학회 회장이던 황정철씨가 임시의장을 맡았다. 임시의장은 진행절차에 따라 경과보고 및 정관(안)을 낭독케하고, 감독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치사와 국회건설위원장(대리)의 축사가 있었다.

임시의장은 임원선거를 선언하였고, 전형위원(황정철, 최영박, 김운제, 김광식, 안수한)을 선출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을 부탁한 바, 다음과 같이 초대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초대 회장단>

회 장 : 김윤기

부회장 : 김해림, 박성우

이 사 : 이정욱, 이문혁, 노승욱, 김여택, 한을출, 김광식, 안수한,
이원환, 최영박, 이도권, 장학순, 정봉일, 전철지, 김시원

감 사 : 최보영, 김형수

한국수문협회는 1967년 12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2월 30일, 한국수문협회가 법원에 등기를 필함으로써 대망의 탄생을 맞이하였다.

2.1.2 1970 ~ 1979

1967년 12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 설립허가를 받아 12월 30일 탄생한 한국수문협회는 1970년대에 이르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나라의 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수자원개발, 수문자료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활동 및 기술교류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7년 11월 26일 한국수문학사의 새장을 여는 한국수문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쌍용빌딩 18층 회의실에서 150여명의 수자원 전문가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급속한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심과 전문적인 기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국의 주요 하천의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의 분석 그리고 이들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수리·수문학적인 설계 등에 필요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자원 시설 즉, 저수지 또는 하구둑 등의 저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기법의 연구도 활발하였다.

특히 1975년까지 계획된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의 시도였다.

한편 정부는 UNDP 자금을 의해서 낙동강 유역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66~1974년까지 약 8년간 유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는 FAO의 참여하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담당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3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유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1968~1972년까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 국토의 60%이상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실질적인 한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준공(1967~73)되었고 그 후 낙동강 유역의 안동댐(1971~76), 금강유역의 대청댐(1975~80), 남한강유역의 충주댐(1978~85) 등이 건설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이러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수문학과 수문기술은 장족의 발전을 보았고 더구나 물을 중요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UNESCO의 권유에 따라 IHD(1965~74)의 사업으로 소유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어서 IHP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수문설계에 필요한 자료 축적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학회활동은 이러한 수자원 개발 업무를 주도하던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관련 기사나 논문도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2.1.3 1980 ~ 1989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수문학회의 역할은 과거 십수년 동안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데 힘입어 국내적으로는 물 관련 전문학회로서 유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의 수자원 정책과 방재대책 등의 수립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70년대까지는 주로 전국의 주요 대학의 교수들과 건설부 본부 공무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임원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수문학회도 1980년대에 들면서 경제

개발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용수 수요가 급증하고 상습적인 한·수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 그리고 항구적인 한·수해방재 등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 관련 학회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국수문학회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건설부 및 산하 물 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당시에는 농업진흥공사였음) 직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해양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설계·용역업체의 기술자를 비롯한 건설시공업체 기술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서에서 많은 회원들이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수문학회의 연혁 및 발전사는 당시 미래를 지향하는 원로 회원들의 욕구를 요약해 보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이들의 권두언은 한국수문학회의 발자취이자 학회의 앞날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의 가파른 경제 개발 시대에서 부산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수자원 수급의 불균형, 수질오염을 포함한 수환경 그리고 수자원 관련 이론과 실제의 응용과 술개발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및 방향을 제시한 권두언은 1980년대의 한국수문학회의 역사라 할 것이다. 이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볼 때 1980년에는 「물문제의 재인식, 물 개발과 보전, 국토개발계획의 방향」과 1981년의 「한발과 물 부족, 물 관리, 한·수해의 교훈」으로 당시의 수해에 대한 인식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필요성을 논한 1982년의 「수문관측의 필요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1983년의 「물의 고도 이용,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 방안, 수문기술자의 사명」을 들 수 있고, 학회 발전을 위한 1984년의 「학회지의 편집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전을 제시한 1985년의 「한국수문학의 전망, 우리나라의 물 문제」, 1986년의 「한국의 수자원 개발 방향, 하천 개발 방법의 전환」, 1987년의 「수문조사의 개선, 한국수문학회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불충분한 자료와 기술로 개발된 수자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견으로 1988년의 「한국 수공기술의 발달」, 1989년의 「수공학 연구의 활성화,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가 후배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2.1.4 1990 ~ 1996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회는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우리나라 수자원분야의 연구

에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연구분야도 더욱 다양화 되었으며, 늘어나는 학술 및 기술정보, 논문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술지와 논문집을 분리·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학회 회장단은 홀수년도의 정기총회시에 선출하였으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차기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선임하며 이사도 부회장과 같은 형태로 선임하여 왔다. 또한, 평의원의 1/2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임하고, 나머지 1/2은 회장이 지명하며, 고문과 참여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추대된 회원으로 구성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 회장은 학계에서 2차례 역임하고 그 다음 1회는 업계에서 역임하도록 하였으며, 부회장은 통상 3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은 건교부 수자원 심의관(건설부 수자원국장)이 당연직 비슷하게(당연직은 아님) 역임하여 왔고 나머지 2명은 학계 위주로 역임하면서 업계에서도 역임한 경우가 있었다.

이사회는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당일에는 필수적으로 개최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별도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소집되었고, 통상 이사회와 겹쳐서 이루어져 왔다. 사무국장은 1977년부터 재직해오던 정의석 국장이 1993년 2월 28일부로 퇴직하고 후임으로 현재의 김현권 국장이 동년 1월 4일부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2.2 연도별 연혁 및 발전사

2.2.1 1967 ~ 1969

한국수자원학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한국수문학회나 그 이전의 한국수문협회가 있었으며, 또 한국수문협회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것은 1963년 7월에 서울대학교 안수한 교수 등이 발족한 수공학연구회였다.

한국수문협회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1967년 11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67년 12월 23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발족되었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수문기술의 건전한 발전, 이해와 그 응용을 통해 국민생활의 복지향상에 기여

함에 있었다. 또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문자료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수문자료의 표준화 및 기술보급, 대정부 건설 및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업무, 국제활동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수문관련 인쇄물을 간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초대 회장으로서는 건설부 장관을 역임한 김윤기 박사, 부회장으로는 김해림 대한토목학회장, 서울대학교 박성우 교수가 추대되었으며, 이사 14인과 감사 2인이 선출되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명예직이고, 협회실무를 집행하는 사무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직이었다.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의 4종류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67년도 연간 정회원 회비는 500원이고, 68년도는 600원이었다.

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편집이사회를 두었다. 1968년에 이사회는 한국수문협회 인장규정, 총회운영규정(안), 지부설치규정(안), 위원회규정(안), 여비규정(안) 등 각종 규정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협회가 설립되면서 초창기 협회의 업무는 건설부 수자원국 이수과 수문계에서 맡아 수행하였다. 이수과 수문계 김운제 계장이 협회의 간사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임시 협회사무실은 자동적으로 수문계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 기간동안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협회사무실 운영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2월에서야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김박길 씨를 선임하게 되었으며, 독립된 협회사무실은 정관에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규정되어 있는 바, 1968년 5월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11-3, 풍전빌딩)의 사옥을 대여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부설치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 1월 20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사업발전의 일환으로 회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회지명을 「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13일에는 협회의 영문표기를 「Korean Association of Scientific Hydrology」로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0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1967년도(1967. 12. 1~1968. 3. 31)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을 보고하였으며, 196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였는데,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총액을 2,405,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 중 50%는

정회원 250여명의 회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사업수입은 겨우 100여 만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8월 3일 건국대학교 낙원동 분교에서, 참석인원 55명, 위임 22명, 계 77명으로 제 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정기총회 후 학술강연회가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10월 8일, 한해대책에 관한 대 정부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는 바, 이를 보완하여 조속히 제출하기로 하였고, 계약 수탁 업무인 「강우량자료의 정리 및 분석」은 90만원에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1969년 4월 11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어 1968년도(1968. 4. 1 ~ 1969. 3. 31)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을 결산 보고하였으며, 196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당해 연도 수입예산액 3,590,000원에서 정회원 250명, 특별회원 10명, 찬조회원 10명의 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수입으로 조사연보 외 2종의 수탁업무를 통해 1,900,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었다. 또 지출내역에서는 총액 3,590,000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부분은 수수료 부분이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서구입비가 겨우 85,000원이었다는 사실이다.

1969년 5월 10일, 건국대학교 낙원동 분교에서 제 3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건설부장관의 치사와 과학기술처 장관과 건국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수문협회가 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25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어 유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하자고 하였으며, 회원증은 금물 까만색 요철마크로, 가로 29.5cm 세로 22cm 크기의 한영문으로 고급 옵셋트 인쇄한 것으로 발급수수료 400원을 한국수문협회로 불입하면 회원증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협회가 창립된지 7개월 후인 1968년 6월, 우리 나라 유일의 물 종합지이면서, 한국수문학회지의 창간호인 「물」이 발행되었으며, 1969년 5월에 발행된 2호부터는 회지명이 「물의 과학」으로 개칭되어 연 2회 발행되었는데, 명칭변경의 이유는 「물」의 발간지연으로 인해 문화공보부로부터 허가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2.2.2 1970 ~ 1979

1970년 5월 30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안경모 회장은 IHD사업에 따라 정부와 협조하여 임무를 완수할 것을 재고하였으며, 1월 27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물의 과학」 제 4호 발간 및 회지명 변경과 Mr. Hackett의 명예회원증 교부 및 강연회 보고, 대표시험 유역조사 기술협조 사업 완결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2월 25일에는 과학기술처에 학술지 보조금 신청, 과학의 날 수상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였다. 6월 25일에는 「물의 과학」 3-2호(제 5호) 발간,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이 있었고, 9월 29일에는 과학회관 입주 신청 및 출자신임, 수자원개발 조사연보 발간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제 4차 정기 이사회는 12월 8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공무이사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수자원개발 조사연보 발간과 남한강 수계 수문자료 분석업무 계약에 관한 안건을 다루었다.

1971년 5월 29일 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제 4차 정기 총회에서는 70년도 사업 및 경과,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었고, 71년도 사업계획(안),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개선 등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1월 29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보고가 있었고, 남한강수계 수문자료 분석 업무계약과 과기총연 대의원 2명을 선출하였다. 2월 2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과학기술상 수상 후보자, 국가 훈장 수여자, 산업시찰 및 70년대 국가시책 청취자를 추천하였고, 과학기술처에 보조금 신청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8월 30일에는 1/4분기 수지보고와 이사 2명 보충, 수탁사업에 대한 토의, 기념상패 증정 등이 있었다. 9월 15일에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미불금 지불, IUGG 선임위원 추천이 있었다. 10월 27일에는 상반기 수지보고가 있었고, 수자원개발조사연보 역무계약 보고, 이사보충 등의 안건이 있었다.

1972년 12월 회지 5권 2호부터 사단법인 한국수문협회가 사단법인 한국수문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회지 영문 명칭을 「Korean Association of Scientific Hydrology」에서 「The

Korean Society of Scientific Hydrologists」로 변경하였다. 1972년 5월 27일 정기총회가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되었고, 71년도 사업 경과보고, 결산보고, 72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예산(안) 심의, 정관일부 개정, 임원개선 등의 안건에 대한 회의와 중앙기상대 김광식 연구조사부장의 학술강연이 있었다. 7월 12일 이사회에서는 제 6차 정기총회경과 보고, 72년도 1/4분기 수지보고, 정관일부 개정 경과보고, 과학기술처보조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학회영문명칭을 결정하였으며, IUGG 선임위원추진, 과학기술자 표상 후보자 추천, 수공연구발표자 선정, 이사 1명 보충 등의 안건이 있었다. 10월 21일 이사회에서는 10.17대통령특별선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1월 20일 이사회에서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12월 22일 이사회에서는 「물의 과학」 제 4-2호 발간,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기념상패 증정 등이 있었다.

1973년 2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새마을기술봉사단 지도위원 추천, 새마을건설 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 개최, 학회운영방안 토의, 과학기술보조금 신청, 학술좌담회 개최 등의 안건이 있었다. 5월 30일 이사회에서는 제 7차 정기총회경과 보고, 임원 부서 결정 등을 다루었다. 11월 20일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수지 보고,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토의, 학회지 「물의 과학」 발간 토의, 한국수문학회 포상규정(11조)을 제정하여 197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74년 3월 9일 제 8차 정기총회가 산업기지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되었으며, 73년도 사업 경과와 결산을 보고하였고, 74년도 수지예산(안) 심의, 임원(감사)개선, 감사장 수여 등이 있었다. 4월 2일 이사회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 상황실에서 개최되었고, 1/4분기 수지보고, 학회지 「물의 과학」 7-1호 발간, 학회지 영문명칭 개정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7월 30일 이사회에서는 정기 이사회 회의록 보고, 수문학 과학기술용어 제정 보고, 상반기수지 보고,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토의, 유역의 물 순환과 그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토의, 1974년 판 과학기술연감 원고작성 토의, 사무장 교체 토의가 있었다.

1975년 3월 8일 제 9차 정기총회에서는 74년도 사업경과 및 결산 보고가 있었고, 75년도 사업계획(안), 수지예산(안)에 관한 심의, 임원개선, 감사장 수여 등이 있었다. 5월 14일 이사회

가 산업기지개발공사 상황실에서 있었고, 국제심포지움 참가보고, 임원책임부서 배정 토의, 수탁사업 계속 및 보고서 발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11월 8일에는 동경심포지움 참가준비 경과보고,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토의, 「한국의 홍수('74)」 발간 토의, 「하천시설물 기본 설계 기준작성」 발간에 관한 토의와 동경심포지움 분과위원장을 선정하였다. 12월 24일에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한국의 홍수('74)」 발간,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작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1976년도 학회창립 1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1976년 5월 22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7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보고, 7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임원(감사)개선 등의 안건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11월 13일 이사회에서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과학기술회관 입주, 과총련 대의원 1명 선정, UN 수자원회의 참가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권오현 전 간사에게 감사패 증정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12월 18일 이사회에서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 보고, 76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가결산 보고, 7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5.16민족상 수상후보자 추천, 수문학 전문가 모집, 지표면 증발량 평가에 관한 학술토의 참가, 김영환 전 사무장에게 감사패 증정에 관한 안건이 있었다.

1977년 1월 29일 이사회에서는 76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심의, 7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학회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 11차 정기총회개최 토의, 과기처시행 과학의 날 수상후보자 추천 토의, 수문 전문가 모집에 관한 안건이 있었다. 정기총회가 2월 19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 상황실에서 개최되었고, 76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심의, 7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임원개선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2월 25일 한국수문학회 정관 개정이 있었다. 3월 8일 이사회부터 11월 26일 있을 예정인 학회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토의가 매 이사회마다 계속되었으며, 용역사업 추진 토의, 학회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토의, 감사패 증정 토의, 간사, 사무장 위촉에 관한 안건을 다루었고, 6월 28일에는 UN 수자원회의 참가 보고, 「한국의 홍수('75, '76)」 발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9월 24일에는 수자원개발조사연보 발간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26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1977년 11월 26일 한국수문학사의 새장을 여는 한국수문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쌍용빌딩 18층 회의실에서 150 여명의 수자원 전문가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기념식은 김시원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학회연혁 보고(김운제 이사), 유공자 표창(신동열 부회장의 심사보고), 안수한 회장의 기념사, 신동식 건설부 장관의 축사(신경식 수자원 국장 대독), 김윤기 과기회총연합회 회장의 축사로 막을 내렸다.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일본 건설기술연구소 熊川信之 이사장이 일본 토목연구소에서 제작한 영화 토석류를 상영하여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수자원 개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고려대 최영박 교수의 「우리나라 수자원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의 발표와 신윤식 건설부 수자원국장의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의 현재 및 미래」라는 제목으로 현 수자원개발 정책 및 문제점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함으로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을 실감케 하였다.

1978년 2월 25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 상황실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77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 승인, 7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7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개정 승인, 임원개선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가 발족하여 이원환 교수가 위원장에 선임되고 제 1회 편집위원회가 1978년 3월 23일에 개최되었고, 한국수문학회 운영세칙이 1978년 10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4월 12일에는 회장단 회의보고, 정관개정 허가 및 임원변경 등기 추진 보고, 건설부 제 보고 사항, 편집위원회 회의 보고, 산학협동재단의 연구과제 추천 보고, 과기총연 제 13회 정기총회 및 동 '78 제 1차 임시총회참석 보고, 1/4분기(1.2~3.30) 수지보고 승인, 회원의 회비 승인, 신인 정회원승인, 대의원 선임, 특별회원 모집안, 광고료 심의 · 승인, 분과위원회 설정 · 심의, 제 운영세칙제정 여부 토의, 국제기구 유대 토의가 있었다. 6월 1일에는 국립건설연구소 소장실에서 정기 이사회회가 개최되었고, 대의원 취임 승낙서 미 접수분 심의, 윤선병 사의표명 토의, 결재순위 토의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신인 회원가입 승인으로서 정회원 가입승인, 특별회원 삼급 신설토의 승인,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특별회원 가입 승인이 있었고 물 수지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8월 18일에는 1979년 9월 3일부터 5일간 소련에서 개최되는 수문학 평가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참가희망 교수들(최영박, 윤

용남, 선우중호, 윤태훈, 이순탁)의 자비부담과견 추천, 국가정책연구과제 논문 「금강유역의 수자원개발을 위한 지질학적 기상학적 및 지구물리학적에 관한 연구」의 심의위원으로 선우중호 교수, 윤용남 교수, 조희구 교수에게 위임·승인하였고, 감사보궐에 최찬식(건설부 이수과장), 강관원(인하대공대 교수) 두 대의원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회지발간 자금 염출안으로 광고신탁 의뢰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전 상근직원 10년 근속 퇴직금 출연 안 등의 안건이 있었다. 9월 19일에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학과장 연구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주요 의안 및 결의 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인가분 회지 페이지량 80페이지 이상을 50페이지 이상으로 수정·승인하였고, 국가정책연구과제 논문 「하천오탁의 예보를 위한 수질추계학적으로 관한 연구」의 심의위원을 선우중호 교수로 위임·승인, 5.16민족상 후보에 안경모 본 학회명에 회장을 추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에는 최영박 우리 학회 전 부회장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회원증발급 재 인쇄를 막대한 경비 때문에 유보를 승인하였으며 운영자금 출연안 모색에 관한 토의와 운영세칙(안) 조정심의 등이 있었다.

1979년 2월 17일 정기총회가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고, 안건으로는 '78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7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정관개정(안) 심의, 임원개선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3월 23일 이사회에서는 부의 안에 대한 승인 사항으로서 회장의 대표권, 집행기구 구성 및 결재권자, 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 신입회원, 찬조 광고료, 과기총련의 전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 권장 사항, 공로상 수상자 및 수공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등이 승인되었다. 8월 29일에는 부의 안에 대한 승인 사항으로서 자립책(유보), 명예회원 기준 설정, 명예회원 추대(유보), 신입회원 17명, 학회지 발간 규모, 연구분과 위원회 설정 및 위원회, 대의원 추가 승인 24명, 학술강연회 개최, 관리사업전담부회장 선임 등의 사항이 있었다.

2.2.3 1980 ~ 1989

1980년 2월 2일(토) 제 14회 정기 총회에서는 재적 316명중 112명이 참석하여 1980년도 사업 계획 중 학회지 「물의 과학」을 「한국수문학회지」로 제호 변경하여 연 4회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분야별 연구분과 위원회 제, 책임연구원제, 그리고 관리사업 학술전담 부회장 제를 실

용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학회지 명칭은 편집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문화공보부로부터 등록 변경 승인을 1980년 3월 7일부로 부여받았다.

1981년 1월 31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제 8대 임원 선출과 제 7대 회장 최영박 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2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신입회원 8명에 대한 소개와 연구분과위원장 선출, 대의원 선임이 있었다. 6월 26일 이사회에서는 특별회원으로 (주)삼안건설 가입사항, 「하천시설 기준(담판)」책임연구자 추가 구성이 있었다. 10월 30일 이사회에서는 회무 보고로서 회원동정과 업무연락, 정부연구과제, 학술활동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2월 28일 이사회회의 의제로는 제 7차 대의원회 상정 안에 대해 다루어졌다.

1982년 1월 30일 산업기지개발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1981년도 학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정부연구과제로서 「재해연보」, 「하천편람」, 「국제수문개발계획 대표시험유역 연구조사」, 「한강홍수에경보 유출 및 상수분석」, 「하천시설기준(담판)」에 대한 사항이 있었다. 3월 30일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 구성, 수공학연구발표회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 수문학 설강에 대한 대 정부 건의를 제출하여 인재 양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건의문에서는 현재 유체역학, 수리학, 하천공학, 그리고 수자원공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설 과목에 1개 학기 3학점의 수문학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이유는 수문학은 수리학과 같이 토목 수공학 분야에서는 기초 필수과목이므로 현행 하천공학 일부에서 1개 장 만으로 다루는 것은 세계적인 학문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것이었다.

198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는 83년도 사업계획으로서 학술진흥사업, 회무운영 방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4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임원변경 법적 정리, 사무실 이전경과, 예비비 사용 승인, 부회장 한수은 제청, 10개 사업추진상황, 4개 운영방침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984년 1월 28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수문 및 수자원의 시책진흥 창달 및 촉진, 학회지, 학술발표회, 국제교류 및 해외연구활동, 교육 및 연수회, 견학, 20주년기념사업 준비, 연구사업, 수탁연구 사업, 국제회의 유치를 학술진흥촉진 사업으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예산보고가 있었다.

1985년 1월 26일 (주)삼안건설기술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는 국제수리학회 아태지역 분회 제 5차(1996년도)학술회의 유치전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2월 2일 전경련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9회 정기총회에서는 198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감사 보고, 임원 개선, 198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986년 2월 15일 (주)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개최된 제 20회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를 시상(오달영, 건설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였고, 1985년도 연중 54건의 주요 업무경과 보고, 보직 부회장(윤영식) 및 보직 이사(노순안, 이현삼, 편종근, 이승민, 송재우, 소봉영), 1985년 사업실적 보고가 있었다. 5월 15일 이사회에서는 32개 주요 회무경과 보고, 기본사업과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보고가 있었다. 12월 15일 이사회에서는 58개 회무경과 보고와 이재명 신임 부회장, 1986년도 가결산 예산, 1987년도 사업계획 수립, 차기 대의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1987년 1월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사무실 마련사업 및 문화공보부 등록에 대한 보고와 1986년도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2월 21일 본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기본사업으로서 학술향상 활성화, 학회지 발행, 제 29회 수공학연구발표회, 국제교류에 대한 사항과 수탁사업,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조직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5월 12일 이사회에서는 회관기금 현황, 수공학연구발표회, IUGG와 IAHS에 대한 보고와 20주년 기념행사 사업 및 예산, 학술용역 추진방향 등의 의결사항이 있었다. 10월 23일 이사회에서는 기본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로 학회지 1회당 700부 3회 발행, 제 29회 수공학 연구발표회, IAHS, IUGG, IAHR, IHP와의 국제교류 상황보고가 있었고,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추진 경과보고, 2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 건에 대해 다루어졌다.

1989년 2월 1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1989년도 학회상 시상과 198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회관매입 경과보고, 감사보고,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3월 17일 수자원시설 보수(주)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관 등기, 198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임원 선임, 법인 등기 등의 보고가 있었고, 심의안건으로서 운영규칙 개정, 평의원 선임, 특별회원 가입, 지부설치 및 운영의 건 등에 대해 토의

되었다. 1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으로는 1989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와 예산집행 보고, 총회시의 특별강연회, 세미나, Workshop, 심포지엄, 외국과학자 초청계획, 학회간 공동 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요청 등의 학술활동계획 제출 요청이 있었다.

1980년대는 학회 사무실을 여러 곳으로 이진해 가면서 현재의 자체회관에 정착한 시대였다. 1983년 4월 2일에는 학회 사무실을 중구 정동 11-3(풍전빌딩)에서 영등포 여의도동 24-3 공무원연금회관으로 이전하였으며, 1984년 12월 22에는 학회 사무실을 강남구 논현동 91-3(주)삼안건설기술공사 사내로 이전하였다.

1987년 2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내에 자체회관을 개관하여 독립의 기틀을 다졌으며 1988년 12월 27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에 주소를 둔 자체회관을 구입하여 오늘의 수자원학회에 이르고 있다.

2.2.4 1990 ~ 1996

1990년도에는 정기총회 1회, 수공간사회 2회, 평의원회 1회, 수공용어집편찬회의 1회, 이사회 4회, 수탁연구/물과학관회의 9회, 공적심사위원회 1회, 회장단 회의 4회, 편집위원회 6회, IHP회의 7회, 학술위원회의 6회가 개최되었다. 제 1차(94회) 이사회는 1990년 6월 15일(금요일) 수자원시설보수(주) 회의실에서 열렸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물과학관 건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에 대하여 주요 과업 내용 및 분담, 과업기간, 예산, 과업 수행 참여 연구자(31명) 및 집필진(6명), 자문위원(10명), 추진경위, 물과학관 건립 위치, 규모 및 공사비와 과업의 현 공정을 경기대 이종태 교수가 보고하였다.

1990년 10월 31일에 수자원시설보수(주)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95회) 이사회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기술의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1990년 9월 5일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조달책을 구하지 못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음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1991년 4월 4일 제 20차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는 평의회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수공학연구회를 수공학연구위원회로 개칭하고 발표회시에는 수공학연구발표위원회로 개칭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학회와 관련하여는 IAHS의 국내위원 및 분과위원은 종전대

로하기로 하고, IUGG 한국위원회는 멤버를 그대로 유지토록 의결하였다. 또한, 과총사무실 권리 확보 추진함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명칭을 과학기술회관 투자기관 협의회로 하고 대표를 조선학회로 결의하였으며, 실무위원회(조선학회, 농공학회, 광산지질학회, 금속학회, 물리학회, 전자공학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참여여부, 제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염출기로 하였다.

1992년도에는 정기총회 1회, 평의원회 1회, 이사회 3회, 공적심사위원회 1회, 편집위원회 4회, 학술위원회 4회, 수공간사회 2회, 회장단 회의 2회 등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2월 22일 정기총회는 한양대학교 종합체육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정관 제 6조 5항 2호에 있어서 참여회원 자격요건을 일부 개정하였다.

1992년 12월 10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중국성에서 1992년 사업실적 보고를 안건으로 개최된 제 3회 이사회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개된 기술 및 학술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수문영향평가제도 도입·유역의 일괄된 관리를 위한 하천청 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의 대정부 건의, 하천청의 환경영향평가에 수자원을 하나의 분야로 참여시키는 대정부 건의 등이 있었다.

1993년도 주요활동으로는 정기총회 1회, 회장단회의 6회, 이사회 4회, 공적심사위원회 1회, 평의원회 2회, 학술 및 기술위원회 2회, 편집위원회 4회, 수공학발표간사회 3회, 임시총회 1회 등이 있다. 특히 제 3차 이사회 및 임시 총회가 1993년 9월 17일 한신오피스텔 2층 심장재단 강당에서 개최되어 학회 Logo 제작 및 학회명 글씨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후 작업에 착수하여 학회지 제 26권 제 4호(1993년 12월호, 통권 79호)에 설명과 함께 Logo가 그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제작된 Logo는 지구를 상징하는 원형을 중심으로 WATER의 첫머리자인 W를 인류 최대의 자원인 물의 형상으로 이미지 화시켜 지구를 감싸게 함으로써 인류와 수공학의 밀접한 관계를 형상화하였다. 1993년부터 제 1회 수공학 Workshop을 개최하여 산.학.연.관의 수공 및 수자원분야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법의 소개 및 문제 해결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실무 종사자들의 실무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94년도에도 수문학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회활

동에 참여하였다. 1994년도 임시총회 및 제 2차 이사회는 7월 9일 여수수산대학교에서 개최되어 학회명칭 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하였는 바, 학회명칭에 관하여는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수공학회의 명칭에 대한 찬성 의견을 9월 학회지에 게재 후 평의원, 이사, 전임회장단에게 서면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고, 수공학연구발표회 시기에 관하여는 발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발표회 개최시기 조정에 대한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키로 하였다.

1995년도에는 기술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해였다. 제 25차 평의원회(이사회 겸회)가 1995년 2월 18일 한국교총회관 2층에서 개최되어 학회명칭 변경(한국수자원학회)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교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는 제 29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1994년도 학회상 시상과 신임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1995년도는 회원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한 해였다. 회원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 수자원공사 본부와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137곳에 회원가입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학회지 논문발표 및 학술발표회 등 학회 행사에 참여하는 수공학분야 전공자에게 권유하여 회원증가에 노력한 결과 1995년도 신규가입 건수가 정회원 147, 도서관 회원 9에 이르렀다.

1996년 2월 23일 임시 이사회가 IAHR 국제회의 유치선정 건 협의를 위해 열렸으며, 논의 결과 유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10월 25일 제 2차 이사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및 편찬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제 4회 세계 수과학·공학회 유치 신청(2000년)에 관해 심의하여 부결시켰다.